

바이오연료 열풍으로 곡물가격 폭등

중국, 9월 이후 옥수수·밀 가격 급등세 ... 에탄올 생산량 102만톤

중국에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는 중국 역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랴오닝(遼寧)성 성도 선양(瀋陽)의 12월5일 옥수수 가격은 톤당 1400위안으로 1주일 사이에 50위안이 올랐고, 다롄(大連) 상품교역시장의 옥수수 선물가격은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2개월 사이에 19.5% 올라 10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동부 산둥(山東)성에서는 9월 kg당 1.4위안도 안됐던 밀 가격이 1.6위안으로 오르는 등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곡물이 석유 못지않은 거래 열기를 띠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옥수수, 밀가루 등의 가격과 함께 각종 식용유를 비롯한 달걀, 육류 등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농산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으며, 국가식량국은 식량 원료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11월 3일, 25일, 30일에 이어 12월7일 4번째로 국가가 비축한 밀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곡물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외자를 포함한 거액의 자본이 옥수수, 콩, 수수, 밀 등을 갈취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체 에너지에서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까지 10%, 2020년까지 16%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발표하는데 이어 8월에는 에탄올을 혼합한 휘발유가 중국 9개 성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농업과학원의 농산물경제 전문가인 왕진민 교수는 “옥수수 가격 상승이 다른 곡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원유 대체 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의 수요 증대로 곡물 가격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영자신문 China Daily에 밝혔다.

중국에서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옥수수는 전체 옥수수 소비량의 6분의1에 불과하지만 고유가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매년 15%씩 늘어나 2005년 1600만톤에서 2006년에는 2000만톤으로 늘어나고 2010년에는 4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년 전체 소비량은 1억2500만톤으로 예상된다.

에탄올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주종 바이오연료로 2005년 생산된 에탄올 102만톤의 원료 가운데 76%를 옥수수가 차지했고, 기타 원료로는 밀과 수수가 주로 사용됐다.

중국은 2010년까지 600만톤, 2020년까지는 1500만톤의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에탄올 생산국인 브라질은 2005년 이미 1690만톤을, 미국은 1510만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산돼 중국의 에탄올 생산은 걸음마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 모두 4800만톤에 이른 중국의 전체 정제연료 가운데 에탄올의 비중은 2%를, 잠재적인 에탄올 수요 480만톤에 대한 2005년의 실제 생산량 약 100만톤은 5분의1을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6>